

우르두어의 딜레마: 델리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언어 사용과 인식을 중심으로*

고태진**

- 차례 -

1. 들어가기
2. 국내외 연구 동향
3. 연구방법 및 설계
4. 연구내용 분석
5. 나가기

* 이 논문은 2019년 4월 두바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8S1A5A8027307),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부교수, india@hufs.ac.kr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인도의 대표 소수집단인 인도 무슬림의 우르두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델리에 거주하고 있는 계토화된 무슬림들의 언어 선택 및 사용패턴에 대한 실증적 사례연구이다.

힌두 국가의 이미지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인도에서 비록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영향이 적더라도, 타종교 및 집단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최대 소수집단으로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정체성의 형성 및 발달 그리고 변화에 대해 우르두어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르두어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인도 무슬림의 언어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국내적으로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 및 필요성에 기초하여 무슬림들의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언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탈세속화와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소수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힌두 중심의 인도사회에서 무슬림의 성격과 우르두어의 사회적 기능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우르두어, 인도 무슬림, 언어 정체성, 탈세속화, 힌디어

1. 들어가기

인도 정부는 독립 이래 세속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세속주의 정신은 그 형식적인 면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1990년대 이래 탈세속화의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경제개방에 따른 경쟁화에 불안을 가진 국민들의 종교로서의 회귀 또는 정치적으로 다수 종파인 힌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당들의 노력 그리고 집단적 이익을 정치에 투영하려는 종파 및 카스트적 정당들의 활약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고홍근, 2009: 1). 이처럼 인도는 하나의 종파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힌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간 인도에 대한 이미지와 이해는 힌두에서 비롯된 사상, 카스트, 문학, 언어, 사회 풍습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시 말해서 힌두를 중심으로 한 탈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현실 앞에서 무슬림을 비롯한 타종교 및 소수 집단에 대한 관심은 그간 등한시 되어왔거나 주목 받지 못하였기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모습은 힌두국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도는 힌두 이외에도 이슬람교, 시크교, 기독교, 자이나교, 불교, 배화교 등의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다원문화 사회로 하나의 종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인도에 대한 세밀하고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타종교 및 집단에 관한 분석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 중에서 무슬림은 인도 인구의 14.5%에 해당되는 약 1억 9천만 명으로 소수 종교에서도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가 힌두와 함께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무슬림은 한때 술탄을 열었던 노예왕조(Mamluk dynasty)를 시작으로 5개 왕조의 무슬림 국가와 무갈 제국(Mughal Empire)을 통하여 인도의 역사와

건축, 미술, 음악, 문학 등에서 주도적 우월성을 보여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들의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인도 사회의 대표적 후진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다. 인도 무슬림의 90%는 소작농, 노무자, 소규모 상인, 장인, 노무자 등으로 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율이 인도전체의 39%에 해당하는 경제적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르두어 교육기관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부모의 무관심은 무슬림의 문맹률이 59.1%에 달하도록 했으며, 인도의 대학에서 무슬림 대학생의 비율 또한 6%밖에 이르지 않아 인도의 지정 카스트와 부족민(Scheduled Caste and Scheduled Tribe)보다 못한 교육적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어 타종교집단에 비해 경제와 교육면에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그 세력이 결집되어 있지 않아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공무원직을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이처럼 무슬림은 대표적 소수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문화의 측면에서 한때 화려했던 역사적 배경을 등 뒤로 하고 오늘날 경제, 교육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열등하고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슬림들을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할 뿐만 아니라 배타적이거나 부정적인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카슈미르 분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력 및 테러, 그리고 힌두우익의 정치가 및 종교지도자들에 의한 종교갈등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스스로를 힌두의 위협 속에서 억압받는 소수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미약한 정치적 영향력과 힌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종교적 탄압을 받는 무슬림은 누구인지, 언어 사용을 토대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국내의 연구 동향

인도 지역에 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힌두에서 비롯된 종교, 사상, 카스트, 사회 풍습, 언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도 무슬림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있다. 물론 힌두와 무슬림 간의 갈등과 관련한 종파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한 관심은 일부 무슬림 연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종파갈등을 다룬 김우조 외(2006), 백좌흠 외(2003), 고흥근(2009), 힌두-무슬림의 역사적 관계를 다룬 박금표(2003)가 있으며 무슬림의 사회풍습을 다룬 박정석(2007), 무슬림의 특성을 다룬 최종찬(2009) 등이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의 연구는 주로 무슬림의 종파주의, 수피즘, 사회 풍습, 무슬림 여성 등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다¹⁾.

또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국외적으로 무슬림의 언어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Ahmed 1992: King 1999)가 있으나 이 또한 무슬림의 언어가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일반적인 개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를 간과함으로써 지엽적이고 고정적인 연구 관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소수집단이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변화하고 있는가와 그 정체성의 형성, 발달 그리고 변화에 언어 및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관계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도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종교적·사회적 갈등의 변

1) 박정석, 『카스트를 넘어서』, 민속원(2007), 191면.

2) 이외에 관련된 무슬림의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Ahmad, Caste and Social Stratification of Muslims in India (Delhi: Manohar, 1978), Khalidi, Indian Muslims since Independence (New Delhi: Vikas, 1996), Taher, Muslims in India. (New Delhi: Anmol Publications, 1993) 등이 있다.

수들이 소수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 언어와 종교라는 매개체를 통해 동일한 정체성 형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근원적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디어 발달과 탈세속화의 영향으로 힌디어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도의 현실 앞에서 무슬림 개인은 과연 우르두어와 힌디어 사이에서 어떤 언어를 선택 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사례로, 개인과 집단 간의 정체성 충돌 또는 딜레마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도 무슬림의 언어 인식과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사례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도의 대표 소수 집단인 무슬림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측면에서 언어학을 토대로 자료 수집 및 정보구축을 도모하고, 무슬림의 정체성을 고정불변 혹은 단순화 시키려는 종교지도자나 정치가의 조작에서 벗어나는 연구사례가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 인도 무슬림의 언어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인도지역연구가 힌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보면 우리에게 인도 무슬림은 힌두와의 종교 갈등에서 보여주는 부정적 이미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 및 필요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그간 연구의 대상에서 등한시 되었던 인도의 대표적 소수 집단인 무슬림에 대한 자료 정리 및 축적은 앞으로 파키스탄 연구와 연계되어 남아시아 지역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전공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과별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주제의 확대와 종합적 결론을 위해 타학문의 연구방법을 적용함

으로써 인도 지역학 연구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다.

셋째, 무슬림 간의 성, 연령, 교육, 경제 등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실제적 언어 사용과 인식 및 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언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는 무슬림의 정체성을 고정 불변적 속성으로 규정하는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이들의 정체성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탈세속화와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소수집단의 정체성 딜레마와 관련한 실증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소수집단의 정체성은 선택 조작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통해 힌두 중심의 인도사회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무슬림의 언어 선택과 그 특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설계

언어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회언어학적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구체화되며, 언어를 통해 강화, 지속되는 언어의 불가결성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언어와 정체성 간의 구체적 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언어 결정론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편협적인 태도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언어에 따른 정체성을 유형화하지 않기로 한다.

주제의 특성과 실증적인 연구 사례가 되기 위해 자료 수집의 많은 부분은 현지조사를 통해 수행되지만 그 대상 지역은 델리로 국한하기로 한다. 물론 인도무슬림은 지역, 인종, 학력, 계층, 카스트, 교육 등에 따라 다양한 구성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무슬림의 특성을 일반화하

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별적 특성과 집단적 특성을 진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무슬림의 종교적 특성과 관련한 종교적 기초연구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관련 연구자의 교류를 통해 이슬람교의 개념적 구도 설정과 이해를 도모하기로 한다. 그리고 힌두와의 비교는 다수와 소수와 환경적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만 다루지 않을 수 없겠지만 힌두까지 살펴보아야 할 범위에는 제한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은 독립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하여 영국 강점기와 무갈 제국시대의 상황은 논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우르두어 발달 및 힌디어와의 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그 이전까지도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1. 연구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설문 조사,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힌두와 무슬림 간의 언어 인식을 분석한다. 문헌 조사로는 인도무슬림의 생활, 언어,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과 관련된 서적, 신문, 잡지, 학회지를 수집 정리하고 통계청 자료의 확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설문 조사는 성별, 계층, 학력 등의 구별 없이 델리에서 현지 전문 인력과 유학생을 활용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는 현지에서 교육 및 정책 관계자, 일부 종교·정치 지도자, 일반인과의 면접도 병행하여 균형적인 연구시각을 제공 받는다.

3.2. 설문대상

인도의 무슬림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언어 속에 나타나는 개별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일차적으로 인도 무슬림의 다양한 영역과 현상들에 대한 분과학문 차원에서의 분석과 해석을 도모하기 위해 인도 현지에서 자미야 밀리아 이슬라미아(Jamia Millia Islamia) 대학교 우르두어과 교수(Dr. Syed Tanvir Hussain)와 해당 학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2019년 1월 약 2주간 델리에 거주하는 무슬림들과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지식 및 정보를 축적하였다. 설문지는 총 4장으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개인 정보(나이, 성별, 학력 등), 언어적 배경, 힌디어에 대한 인식, 우르두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언어와 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긍심, 관심, 직업, 인식 차이, 미래, 교육, 종교 등으로 구성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맹자에 대한 설문 조사는 구두로 진행되었고, 무슬림 여성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는 해당 대학교 여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³⁾.

설문에 응한 대답자는 총 188명이나,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체 참여자 수는 항목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명수	%
성별	남	77	41.8
	여	107	58.2
연령	10대	49	26.1
	20대	57	30.3
	30대	33	17.6
	40대	45	23.9
	50대 이상	4	2.1

3) 무슬림 여성들과의 설문조사는 최대한 편한 환경에서 여학생 보조연구원들이 설문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구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학력	초등학교 이하	6	3.2
	초등학교 졸업	25	13.3
	중학교 졸업	37	19.7
	고등학교 졸업	38	20.2
	대학교 이상	82	43.6

설문지의 내용은 사회언어학적 기초 자료 수집, 언어 사용 및 인식, 언어구사능력, 힌디어와 우르두어의 차이에 대한 인식, 모어와 지역어 간의 관계, 종교와 언어 간의 관계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나이, 학력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그에 따른 정체성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상관관계는 <표 2>와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풀어내지 못하였지만, 무슬림 남성과 여성 간의 무슬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매우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 및 교육 기관의 언어 정책에 관한 입장, 언어사용에 따른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무슬림의 특성 등 설문지에 의한 조사방법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체적 응답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무슬림의 정체성과 관련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는 국내는 물론 인도에서도 실시된 적이 없는 실증적 연구사례이다.

[표 2] 구성 요소 간 상관관계

		성	나이	학력	언어- 종교정체성	종교- 언어인식
성	Pearson 상관	1				
나이	Pearson 상관	-0.037	1			
	유의확률 (양측)	0.616				
학력	Pearson 상관	0.129	-.170*	1		
	유의확률 (양측)	0.080	0.020			

언어- 종교 정체성	Pearson 상관	.847**	-0.049	.197**	1	
	유의확률 (양측)	0.000	0.508	0.007		
종교- 언어 인식	Pearson 상관	.707**	0.017	0.094	.791**	1
	유의확률 (양측)	0.000	0.818	0.198	0.000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 (양측).

*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 (양측).

3.3. 연구주제

3.3.1. 나는 누구인가? : 인도 무슬림의 갈등과 공존

무슬림은 인도 사회를 구성하는 소수자들 중에서 가장 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힘없는 소수자로 남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하거나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집단은 하나의 정치체제 내에서 차별, 열등 그리고 억압을 통해 문화적 자기표현과 자기발전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강화하려고 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이러한 속성은 그 집단의 정체성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정체성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강화 혹은 약화 그리고 전승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체성이 사라지기도 하는 전변(轉變)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더욱이 정체성은 종교, 종족, 언어, 경제, 카스트 등과 같은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체현의 정도가 다른 다중성을 보이고 있어 단수적 혹은 유형화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특히 무슬림의 정체성은 종교를 바탕으로 언어, 정치, 교육, 지역, 교육, 경제, 카스트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들로 이루어지는 복합적 성격을 보이고 있어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인간의 행위를 대표하는 사회문화적 구성물로서 한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전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지만 언어는 형성과정에 지속, 변화 및 강화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담론을 담아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 무슬림의 경우에 있어서 언어는 종교와 더불어 “나는 누구인가?”의 근원적 물음에 대한 자신의 좌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해야할 영역이다.

그러나 정체성 형성 요인이 단순히 우르두어로 대표되는 언어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인, 지역적 특성, 인도라는 울타리 등 거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업, 학력, 성별, 나이, 거주환경 등 복합적이기에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집단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우선 델리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통해 정체성이 전변적인 것임을 시대의 흐름과 환경에 따라 달라졌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3.3.2. 언어에 나타난 힌두와 무슬림 간의 정체성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힌두와 힌디어, 무슬림과 우르두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힌디어가 인도의 공용어(official language)이고 우르두어가 파키스탄의 국어(national language)라는 정치적 상징성과 더불어 두 언어 간의 서로 다른 문자사용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슬림은 언어를 정치적·종교적 투쟁의 도구

로 인식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힌디어와 우르두어는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상호 유사한 측면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한 언어이다. 힌디어가 산스크리트어에서, 우르두어가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에서 각각 어휘를 많이 차용하여 문자 이외에도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적어도 인도에서 힌두와 무슬림은 거의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무슬림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채 (설문 문항 G1, G3, G4, G5 결과 참조), 우르두어라는 자신들만의 고유 영역을 통해 집단의 정체성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인도의 잠무와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주의 공용어에 관한 문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지역으로 유명한 잠무와 카슈미르는 다른 주와 달리 거주민의 과반 수 이상이(약 67%) 무슬림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까닭에 인도 정부는 무슬림에 대한 배려로 무슬림의 언어인 우르두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 무슬림들은 카슈미리어(Kashmiri) 사용자들로서 우르두어와 전혀 다른 별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는 무슬림의 실제적 언어사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이지만 무슬림은 자신의 언어가 적어도 한 개의 주에서 공용어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그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3.3.3. 우르두어의 게토화(ghettoization)?

우르두어는 인도에서 이슬람 종교와 함께 무슬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의 언어가 특정의 정체성을 표출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언어공동체 구

성원들 간의 공유된 인식은 언어의 영역에서 개인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담론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통 무슬림 지도자들과 힌두우익의 정치가들은 무슬림의 정체성을 단일한 언어의 사용과 결부지어 규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슬림은 지역에 따라 우르두어 이외의 다른 언어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변수(linguistic variable)를 보여주고 있어 개인과 집단의 언어 정체성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언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이전에, 각 집단의 언어는 그 구성원이 쌓아온 정체성의 집합체를 반영한다는 시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간 언어와 정체성에 관한 국외연구는 특정 집단의 특정 언어 사용에 국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인의 언어 현실과 정체성의 충돌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언어사용 측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한다.

4. 연구내용 분석

본 연구는 무슬림의 언어 선택과 인식 및 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정체성에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사례 연구이다.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무슬림의 구성과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구성원의 변화와 연속성을 예견할 수 있다. 갈등과 대립의 틀이 종교에 토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슬림의 근거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못지않게 언어 또한 그들의 정체성 형성과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탈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힌두 중심의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교육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슬림은 다수 집단의 대표 언어인 힌디어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힌디어와 우르두어 간의 언어학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적 측면에서 별개의 언어가 된 인도 현실에서 대중은 자신의 언어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종교 지도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심리적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언어는 인간과 인간을 소통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어주고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며 인간의 사고 및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연구는 그 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첫 걸음 이 된다. 특히 인도에서 언어는 집단의 정체성 확립에 종교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 형성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존의 틀인 다원주의적 입장에 따라 여러 집단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언어를 단순히 사회적 투쟁의 도구로 보는 정치학적 관점 및 인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안에서 거치는 담론과정, 즉 언어적 실천을 통해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하며 언어가 정체성 형성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4.1. 무슬림의 언어선택과 사용패턴에 관한 고찰

인도는 독립이후 공존의 틀인 다원주의적 입장에 따라 여러 집단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언어를 바탕으로 한 주(州)의 재편성, 공용어로서의 힌디어 채택, 주요 언어의 지정어 추진 및 소수언어 보호정책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다수집단의 대표적 언어인 힌디어

의 위상이 통신 및 미디어의 보급과 발달과 탈세속화의 영향으로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소수집단인 무슬림은 우르두어의 교육기관의 확대와 신문 발행을 통한 언어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힌두와의 종파갈등은 무슬림을 힌두와 분리시켜 놓고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무슬림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와 언어를 바탕으로 힌두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무슬림은 열등한 시민, 테러 집단, 후진계층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슬람 종교는 무슬림에게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슬림의 언어인 우르두어는 결코 종교만큼 지속 가능한 매개체는 아닌 것 같다. 비록 우르두어가 독립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상징적 사회 자본으로서 종교만큼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지만 탈세속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 그 영향은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설문 문항 D와 E 문항 분석결과). 이는 우르두어가 힌디어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측면과 유관해 보인다. 힌디어와 우르두어는 일부 어휘와 문자에서 차이를 보일 뿐 언어학적으로 유사한 언어이다.

4.1.1. 탈세속화와 인도 무슬림의 언어 사용 현황

비록 우르두어가 독립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상징적 사회 자본으로서 종교만큼 무슬림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지만 탈세속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 그 영향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무슬림의 언어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언어 사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 188명 중 총 97명이 ‘우르두어는 무슬림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우르두어가 인도 무슬림의 상징

이 될 수 있다'고 본 응답자는 88명으로 그 비율이 과반수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92명은 '모든 인도 무슬림은 우르두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적어도 델리에 거주하는 인도 무슬림의 우르두어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종교보다는 다소 약한 것으로 보여 진다.

4.1.2. 힌두-힌디어 그리고 무슬림-우르두어

탈세속화가 비록 힌두 중심의 사회에서 무슬림의 단결을 요구하면서 힌두와 무슬림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무슬림의 언어 정체성은 오히려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힌디어와 우르두어 간의 유사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힌디어와 우르두어 간의 언어학적 특성 및 두 언어 간의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도 무슬림의 대다수는 힌디어와 우르두어를 서로 다른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총 188명 중 169명이 두 언어는 문자의 상이성 이외에도 같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힌디어가 힌두의 상징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39명에 불과하여, 영국 강점기 때 힌두교와 힌디어를 동일하게 간주하였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사라진 것 같다. 또한 힌디어와 우르두어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인 힌두스타니어가 인도의 국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14명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여, 힌디어와 우르두어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2. 인도 무슬림의 언어 인식과 정체성

힌두 중심의 사회인 인도에서 최대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의 언어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인도의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무슬림 집단이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변화하고 있는가와 그 정체성의 형성, 발달 그리고 변화에 언어 및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떠한 관계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언어는 단순히 의미의 전달과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사회 자본으로 다언어사회에서 한 집단의 열망된 정체성을 구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특정의 언어가 특정의 정체성을 표출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인식에 기인하고 이러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언어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힌디어 중심의 사회에서 무슬림의 언어는 분명 집단의 정체성 형성을 표출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지라도 힌디어가 인도의 범국민적 공용어 되는 사회에서 무슬림 개인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힌디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도와 같은 다언어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코드전환의 현상은 소수 집단의 언어가 다수집단의 언어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사회적 과정을 반영하고 있어 언어 선택에 따른 개인의 정체성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독립 이후 인도의 많은 소수 집단은 단결과 결속을 위해 종교와 언어를 매개체로 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인도 사회와 정치는 탈세속화의 경향을 띠어왔다. 그러나 탈세속화가 비록 힌두 중심의 사회에서 무슬림의 단결을 요구하면서 힌두와 무슬림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무슬림의 언어 정체성은 오히려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열등한 무슬림이 종교적 정체성은 유지하되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언어, 즉 힌디어의 선택과 유관해 보이기도 한다. 물론 힌디어와 우르두어 간의 유사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4.2.1. 인도 무슬림에 대한 해석과 조작적 정체성

우르두어는 인도에서 종교와 함께 무슬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의 언어가 특정의 정체성을 표출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인식은 언어의 영역에서 개인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담론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무슬림 집단이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르두어를 매개체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표 2>의 구성 요소 간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듯이, 무슬림 개인별 특성과 정체성의 관계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 3>에서와 같이 언어와 종교 정체성 간의 관계와 종교와 언어인식에 대한 설문문항 만을 가지고 본 연구의 해석을 하는 제한이 있다.

[표 3] 가설검증 결과 (T-test 및 ANOVA 결과)

구분	집단	F값	유의수준	결과
언어-종교정체성	성별	11.722	0.001	채택
	연령	8.700	0.000	채택
	교육	12.212	0.000	채택
종교-언어인식	성별	23.543	0.000	채택
	연령	2.987	0.020	채택
	교육	6.991	0.000	채택

4.2.2. 우르두어의 딜레마, 사회적 · 경제적 지위

무슬림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와 언어를 바탕으로 힌두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 열등한 무슬림은 종교적 정체성은 유지하되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언어, 즉 영어 및 힌디어 사용을 선호하고 있어 우르두어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맥에서 본 연구는 우르두어의 현 주소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변수의 신뢰도

변수		요인적재값	신뢰계수
언어-종교정체성	D2	0.930	0.939
	D3	0.966	
	D4	0.939	
종교-언어인식	J1	0.904	0.877
	J2	0.919	
	J4	0.932	
	J5	0.634	

5. 나가기

본 연구는 무슬림의 언어 선택과 인식 및 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정체성에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사례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연구는 성별, 나이, 학력에 따라 델리에 거주하는 약 180명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 및 인식, 언어구사능력, 힌디어와 우르두어의 차이에 대한 인식, 모어와 지역어 간의 관계, 종교와 언어 간의 관계 등에 대해 2019년 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무슬림의 구성과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이들 구성원의 변화와 연속성을 예견할 수 있다. 갈등과 대립의 틀이 종교에 토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슬림의 근거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못지않게 언어 또한 그들의 정체성 형성과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델리에 거주하는 무슬림 인구는 약 140여만 명으로 인도 무슬림 전체 인구인 약 1억 9천만 명의 0.7%에 불과해, 인도 전체 무슬림의 대표성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우르두어와 인도 우르두어, 그 중에서도 델리 우르두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무슬림 간의 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설문조사를 통해 무슬림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데는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무슬림에 있어서 종교와 더불어 언어가 갖고 있는 정체성, 즉 조작적 정체성 또는 유동적 정체성과 개인 및 집단 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르두어의 현 주소 및 방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별, 나이, 학력 등에 따라 그리고 영어 사용, 직업 선택, 교육, 인식 등에 따라 인도 무슬림의 정체성이 다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 제한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설 검증결과 유의미한 각 문항에 대한 분석이 매우 지엽적이고 단편적이어서, 당초 기대했던 언어와 종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며, 관련된 국외 연구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델리 거주 무슬림들의 우르두어와 정체성에 대한 관계를 담아내지 못했지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우르두어에 대한 자긍심과 그 필요성, 즉 우르두어를 통한 무슬림의 정체성 표출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와 관련한 심층 분석은 향후 후속연구로 남기며, 힌두 중심의 사회인 인도에서 최대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의 언어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출현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Urdu's Dilemma:
Language Use and Awareness of Muslims Living in Delhi**

Koh, Tae-jin(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and identity of Indian Muslim, a representative minority group in India towards Urdu. In other words, it is an empirical case study of language selection and usage patterns of ghettoized Muslims living in Delhi. Studies in other religions and groups are indispensable, even in India, where the image of the Hindu state is becoming fixed, even if it has little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political influ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Urdu works on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change of the identity of Muslims living in the largest minority groups in the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society of India. Although Urdu had influenced the formation of Muslim identity as much as religion as a symbolic social capital after the process of independence, its influence has been weakened in the days of declining secularization. Urdu seems to be used as the most useful means of forming a Muslim identity with religion in India. However, the shared perception among the members of the language community that a particular language is the most appropriate means of expressing a particular identity is criticized for not recognizing

the attributes of the individual in the domain of language and not forming the social discourse correctly have. Therefore, we want to analyze Urdu as a mediator of how the Muslim group is forming and changing identity. In this context, we will analyze their language use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on Muslim's language use.

Key words: Urdu, Indian Muslim, Language Identity, De-Secularization, Hindi

[참고문헌]

□ 단행본

김우조 외, 『인도의 종파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6.

박정석, 『카스트를 넘어서』, 민속원, 2007.

조길태, 『인도 민족주의 운동사』, 신서원, 1993.

조길태, 『인도와 파키스탄』, 서울: 민음사, 2009.

□ 논문

고흥근, 「인도정치의 탈세속화와 무슬림의 딜레마」, 『남아시아연구』 제15권 2호, 인도연구소, 2009, 1-28면.

박금표, 「힌두와 무슬림의 역사적 관계」, 『남아시아연구』, 제8권 2호, 2003, 37-64면.

백좌흠 외, 「힌두-무슬림 갈등의 구조적 성격과 동태분석: 아요디야 사태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제8권 2호, 2003, 53-94면.

양철준, 「케냐 나이로비 거주 인도계 이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과 태도에 나타난 종족적,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의 인식, 수행, 교섭과 전승: 호자 이스마일리, 구자라트 자이나교도, 구자라트 힌두교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연구』, 제18호, 2005, 53-103면.

최종찬, 「무슬림의 특성」, 『남아시아연구』, 제15권 2호, 2009, 81-107면.

□ 국외자료

Ahmad, Imtiaz, *Caste and Social Stratification of Muslims in India*, Manohar, Delhi, 1978.

Ahmad, Z., The System of Caste and the Muslims of India, in F.R. Faridi & M. M. Siddiqi (eds.), *The Social Structure of Indian Muslims*, Gunuine Publications, New Delhi, 1992, 31-49면.

Khalidi, Omar, *Indian Muslims since Independence*, Vikas, New Delhi, 1996.

King, Christopher, *One Language and Two Script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Delhi, 1999.

Taher, Mohamed, *Muslims in India*, Anmol Publications, New Delhi, 1993.

접수일: 2020.12. 05 총평일: 2020.12. 22 게재확정일: 2020.12. 23

[부록] 설문지 구성

* Language background

A1	What is your mother tongue?
A2	What language do you usually speak with your family?
A3	What language do you usually speak with your friends?
A4	How many languages do you speak?
A5	Can you speak English well enough to conduct a conversation?
A6	What is your father's mother tongue?
A7	What is your mother's mother tongue?
A8	Can you read and write Urdu scripts?
A9	Can you read and write Hindi scripts?
A10	Can you read and write English scripts?

* About Hindi

B1	Do you think Urdu and Hindi are the same language except scripts?
B2	Have you learnt Hindi scripts (Devanagri)?
B3	Do you agree that Hindi can be a national language of India?
B4	Do you think Hindi is more important than Urdu in India?
B5	Do you think Muslim should focus on Hindi more than Urdu?
B6	Do you think Muslim should learn English?
B7	Do you think Hindi is important for getting a job in India?
B8	Hindustani as a mixed-language of both Hindi and Urdu can be a national language of India?
B9	Do you think Hindi is a symbol of Hindu?
B10	Are Bollywood-films in Urdu or Hindi?

* About Urdu

C 1	Do you think Urdu represents Muslim's identity?
C 2	Do you think all Indian Muslim should speak Urdu?
C 3	Do you think Urdu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get a job?
C 4	Do you think speaking Urdu and writing Urdu are different matter
C 5	Muslim population is increasing. But do you think a number of Urdu speaker is also increasing?
C 6	Do you think Urdu is a minor language?
C 7	Do you think Urdu is a symbol of Indian Muslim?
C 8	Do you think Urdu can be learned through Hindi alphabet(Devanagri) in stead of Nastalique ?
C 9	Do you want to send your children to Urdu Medium school or Hindi Medium school?
C 10	Where did / do you learn Urdu scripts?

The following statements and questions relate to how you perceive your identity with a language. Please indicate your agreement or disagreement with each statement on Likert scale.

5=strongly agree 4=somewhat agree 3=neither agree nor disagree 2=somewhat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Pride	D 1	I am proud of speaking Urdu	
	D 2	I think all Indian Muslim should know Urdu	
	D 3	I think Urdu can be identified as a language of Muslim	
	D 4	I think Muslim means knowing Urdu	
	D 5	I think Urdu is a minor language	

Interesting	E 1	I like reading Urdu novels	
	E 2	I like reading Hindi novels	
	E 3	I am interested in using Urdu words in Hindi	
	E 4	I prefer to use Hindi to (than) Urdu	
	E 5	I think my Hindi is better than my Urdu	
Job	F1	Knowing Urdu helps one get a job	
	F 2	Knowing Hindi helps one get a job	
	F 3	Knowing English helps one get a job	
	F 4	Knowing Urdu just helps to get a job related to religion	
	F 5	Knowing Urdu is very useful in a society	
Difference	G 1	I think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Urdu and Hindi apart from the script	
	G 2	For me, I do not care speaking Urdu or Hindi	
	G 3	Although Urdu is written in Devanagri script, it is still considered as Urdu.	
	G 4	I think Hindi speakers can speak Urdu	
	G 5	For me, it is irrelevant to distinguish between Hindi and Urdu	
Future	H 1	Urdu will disappear because of less job opportunities	
	H 2	Urdu will disappear because of influence of Hindi	
	H 3	Urdu will disappear because of passive political attitude towards Urdu	
	H 4	Urdu will disappear because of passive attitude of present Muslim generation	
	H 5	Urdu and Hindi should be considered as Hindustani	

	H 6	I worry about the future of Urdu	
	H 7	Young Muslim generation has more inclination to learn Hindi more than Urdu	
	H 8	I think Urdu does not represent Muslim's identity anymore	
	H 9	There is a tendency for young Muslim to neglect Urdu	
	H 10	I think Urdu will be merged into Hindi in few decades	
Education	I 1	I think Urdu should be used as a medium of Instruction in an elementary school	
	I 2	I want coming generation of my community to learn Urdu	
	I 3	I prefer to send my children to Urdu-medium school rather than Hindi-medium school	
	I 4	I think Urdu should be compulsory subject at elementary level	
	I 5	I think Urdu can be written in Romanized scripts	
Religious	J 1	I think Urdu is a religious language	
	J 2	I think Urdu means Muslim	
	J 3	Not necessary for Muslim to know Urdu	
	J 4	I think Urdu is related to Islam	
	J 5	I think Hindi is for Hindu and Urdu is for Muslim	